

# 나주교육청, 23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배움터' 운영

### 지역특색의 다양·창의적인 현장 수요맞춤형 프로그램

### 지역사회 배움·돌봄환경 구축하는 방과후·돌봄 사업

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길)은 지난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나주 23개소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우리동네 배움터' 운영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동네 배움터'는 나주학교지원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지역특색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현장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되는 지역사회 배움·돌봄환경을 구축하는 학교 밖 방과후·돌봄 사업이다.

나주지역 전체 지역아동센터 23개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사전협의회 및 수요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다문화이해교실, 전통놀이체험, 로봇과학, 감성 요리교실이다.

나주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선정하고 강사수당, 재료비 등을 직접 집행한다.

다문화이해교실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5개 국가(몽골, 일본, 필리핀, 베트남, 중국)에 대한 10명의 강사 추천을 받아 지역아동센터에 매주 수요일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 문화체험을 높이도록 배운다.

그 외에도 내손으로 만드는 미래 로봇제작, 오감만족 감성 요리 만들기, 천년고도 나주 목사골의 전통놀이체험 등 특색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산포초에 재학중인 학생은 "내가 상상했던 미래로봇을 내 손으로 하나하나 만들고 조립해가면 너무 재미있어 시간이 딱딱 가버린다."며 즐거워 하고

영강지역아동센터 연합회장(박성락)은 "장시간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역특색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으로 동네 배움터를 운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향후에도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차원의 배움·돌봄 환경을 위해 다양하고 특색있는 현장 수요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 할 예정이다.

기획취재본부



## 순천대학교, '제 6회 토양조사 경진대회' 성공리 개최

### 순천대 생물환경학과 'SCNU SOIL LAB' 팀 장려상 수상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가 최근 생명산업과학대학 부속농장 일원에서 한국토양비료학회, 농촌진흥청과 공동주최한 '제6회 토양조사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양조사경진대회는 토양조사 현장실무능력을 지닌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토양학을 전공하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조사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지난해 충남권역(충남대학교)에서 열린 데 이어 올해는 순천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9개 대학교(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충북대, 한경대)와

1개 기관(국립농업과학원)에서 14개 팀, 총 58명의 학생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개인전과 단체전(3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참가자를 대상으로 토양형태, 층위특성, 분류, 해설 등 주변 지형에 대한 관찰력 및 대상 농경지에서 적합한 작물을 추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고르게 평가하였다.

순천대에서는 'SCNU SOIL LAB'(농화학과 대학원 이주희, 최성우, 생물환경학과 이여명)와 '온실방'(농화학과 대학원 박재혁, 생물환경학과 이승규, 백준석, 김소희) 2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최종 심사 결과 'SCNU SOIL LAB' 팀이 단체전 4등으로 장려상을 받게 되었

다.

경진대회 시상식은 오는 10월 한국토양비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있을 예정이며, 개인전 및 단체전 각 4명(팀)씩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참가팀을 지도한 생물환경학과 김삼운 교수는 "대회를 통해 토양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참가자들과 교류하며 우리 학생들이 한층 성장했기를 뿐 아니라, 수상을 통해 실력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농학자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총괄한 생명산업과학대학 배창휴 학장은 "미래 농학을 이끌어갈 전국의 학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공 분야에 대한 과학기법을 향상시키고 서로의 우의를 다지며 전공 분야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고 경진대회 성공 개최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제6회 토양조사 경진대회 결과 입상 및 시상 내역은 개인전 : 1등(최우수) 주재연(충북대학교), 2등(우수) 강민지(부산대학교), 3등(장려) 이찬욱(국립농업과학원), 4등(장려) 김은희(경상대학교) 단체전 : 1등(최우수) 국립농업과학원, 2등(우수) 충북대학교, 3등(장려) 부산대학교 4등(장려) 순천대학교 개인전 : 흥익학술상(최우수) (상금 100만원), 한국토양비료학회장상 [우수 1 (50만원), 장려2(25만원)] 단체전 : 농촌진흥청장상(최우수 1), 농과원장상(우수 1, 장려2) 등이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주교육청, '스쿨미투 TF 운영경과 보고회'

### 학교 내 다양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절차 개선안 마련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7일 광주학교시설지원단 대강당에서 '스쿨미투 TF 운영 경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학교 내 다양한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처리 방법 및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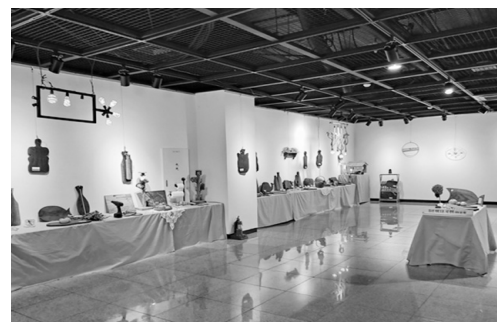
광주시교육청 스쿨미투 TF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여성단체, 교원단체 등 내·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해 광주교육시민참여단 스쿨미투 분과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2019년 12월20일)을 바탕으로

교육 주체 간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매뉴얼 보안을 위해 6개월 간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학생·학부모의 참여 보장 및 행위 교원에 대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 제공,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조사 기구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광주광역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회의를 거쳐 개선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다.

조인호 기자

##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성과물 전시회 개최



2020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가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을 이겨내고 성과물을 내놓아 눈길을 끈다.

여수 여도중학교(교장 윤석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전라남도교육청 1층 갤러리 '이음'에서 2020학년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성과물 자체 전

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올해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팀에 선정돼 활동하고 있는 여도중학교 '나! 만세팀(나무로 만든 세상)'의 목공예품 70여 점이 전시됐다.

'나! 만세' 팀은 여도중학교 2~3학년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학교 김남수 교사가 멘토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해 1학기 동안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틈틈이 공작소에서 팀 및 개별 프로젝트 활동시간을 확보해 작품을 만들어냈다. 이들의 활동에는 지역사회연계 학부모 24명도 함께 참여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빵 도마를 제작해 이번 전시회에 내놨다.

김정환 기자

